

BBK 김경준씨 광은창투 384억 횡령 전말

우회상장 통로 이용 위해 인수 유령회사 투자로 자금 빼돌려

BBK 김경준씨는 광은창투를 자신의 재기 위한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했다. 김씨는 광은창투를 인수한 이후에는 유령회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부실운영으로 회사가 코스닥에서 퇴출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어떻게 우회상장 했나=1991년 4월 19

일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된 광은창투는 99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92억원으로 늘릴 정도로 유망한 회사였다. 광주·전남지역 최대의 창업 및 벤처기업 전문투자회사로 김씨측에 인수되기 직전만하다라도 80여개 업체에 430억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연간 순이익도 5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94년 6 월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최대주주로 지분 34.3%(132만주)를 보유한 광주은행의 부실로 인해 2000년 4월 41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정부주인 자회사의 조기매각을 요구하게 됐다. 광주은행은 이에 따라 2000년 5월 광은창투를 뉴비전벤처캐피탈로 바꾸고 매수자 찾기에 나서는 한편, 또 다른 자회사 광은화이너스를 해산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BBK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김경준씨와 접촉하게 되고 김씨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인 김희인씨를 내세워 2001년 2월 광주은행과 뉴비전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은 이어 3월 5일 뉴비전벤처캐피탈의 주식 38만4천주를 주당 7천400원에, 5 월 3일에는 38만4천주를 주당 6천660원에 김씨측에 매각해 전체 지분의 58.2%를 53억9천904만원에 넘겼다.

이어 200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8만주를 3천240원, 10만주를 1천410원, 27만2천주를 1천33원에 장내에서 매각하는 등 나머지 지분을 10억517만원에 처분했다.

결국 광주은행은 설립 당시 투자금 액 66억 원(주당 5천원, 132만주)보다 5천744만원을 손해보고 회사를 판셈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김씨측이 국내 상장을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모색하다 조기매각 상황에 처한 광은창투를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형으로 상장폐지=김씨는 회사를 인후한후 옵션밸런처스코리아로 이름을 바꾸고 보기도문 전횡을 휘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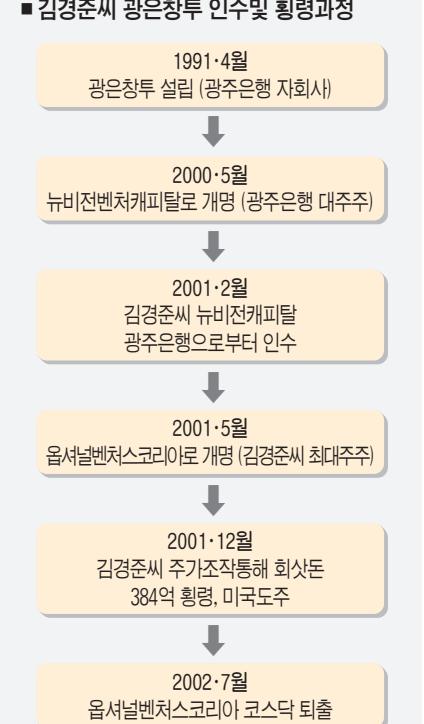
2001년 6월 광주은행이 2대 주주로 있을

때도 일명 ‘포이즌필(Poison Pill)’이라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켜 대표이사가 타의에 의해 물려날 경우 50억원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김경준씨

또 2001년 11월부터 2개월동안에는 회사의 전체 투자대금 211억원 가운데 180억원을 실제를 알수없는 벤처회사 3곳에 투자했다. 김씨는 이를 회사의 주식을 주당 최고 30만원에 사들여 유령회사 투자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다섯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600억원을 모은 후에는 지분의 40%를 고가에 매각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김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모두 384억원의 옵션밸런처스 코리아 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달아났다. 유령회사 투자와 경영진 횡령 등으로 결국 국 읍서널밸런처스코리아는 2002년 7월 31일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시장에 상장 폐지되면서 김씨와의 악연을 끝내게 됐다.

이후 증권사 출신인 장모씨가 퇴출 직전 정리매매를 통해 주당 300원대에 이 회사 주식을 사들여 옵션밸런처스코리아로 이를 바꿔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투·융자 및 유가증권 인수 및 매매 전문 회사로 탈바꿈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우리당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

박영선·송영길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서 제기

“국정조사·특검 도입해 진실 규명해야”

李측 “이명박 죽이기 야비한 정치 공작”

열린우리당 박영선 송영길 의원은 11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미교포인 김경준씨와 함께 BB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옵션밸런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이 전 시장 관련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범죄인 인도요청을 위해 미국에 보낸 주가조작 수사기록에는 이 전시장이 김경준씨와 함께 세운 LKe뱅크 계좌와 자회사인 BBK 계좌가 수없이 나타난다”며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로 명시된 LKe뱅크는 이 전시장이 대주주이고, 주가조작 당시에도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미국 법원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 가운데 이 전시장이 LKe뱅크 계좌를 이용한 내역의 사본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당시 LKe뱅크의 이사였던 김모씨가 주가조작 회사인 BBK의 리스크 매니저로 근무한 점 등도 주가조작 사건과 이 전시장과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BBK 정관과 관련, “이 전 시장측은 자신이 이사회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김경준씨가 정

관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은 공증된 문서”라며 “원래 정관에는 김씨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만일 김씨가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면 굳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송영길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 앞서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된 LKe뱅크 계좌 내역 사본을 공개하면서 “LKe뱅크는 이 전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뒤 김원기 전 의장과 이해찬 전 총리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로부터 격려의 악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창피한줄 알아” “조용하고 들어”

‘주가조작 의혹’ 제기에 난장판 된 국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옵션밸런처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막발이 오가는 소란이 벌어졌다.

먼저 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총대를 뗐다. 오후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각종 도표 및 사진자료를 본회의장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며 이 전 시장 주가조작 연루의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과 가까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영선 의원의 질의시간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신공격 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에 우리당 일부의

원들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들어오라”고 소리치면서 양당 의원들이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창피한 줄 알아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이병석 의원), “별도 기자회견을 해라”(김희정 의원), “다 나가자. 여기 앉아 있으면 이유가 있느냐”(박순자 의원)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우리당에선 “과잉충성하지 마세요”(정철래 의원), “조용히 하고 들어”(선별령 의원)라며 응수했다.

다만 이날 겸종 공방에서 이 전 시장과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측 주요 의원들은 항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BBK 투자社 이명박씨 재산 가압류

2001년 35억여원 청구…법원서 받아들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연관설을 부인하고 있는 투자운용회사 BBK에 투자했던 회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 전 시장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업체 (주)심텍은 2001년 10월 11일 이 전 시장을 상대로 35억여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심텍은 “BBK에 투자금 50억원을 맡겼지만 이익금을 포함해 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의 ‘사실상 운영자’를 김경준 옵션밸런처스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접수한 다음날 “투자 계약 당시 채무자(이 전 시장)로부터 서명화 된 보증을 받지 못한 이유, 채무자가 BBK에 대해 가졌던 법률상 지위 등을 소명해 오라”고 심택 측에 보정명령을 보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보낸 지 열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심텍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시장이 BBK의 채무를 연대 할 만한 법률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심텍은 2002년 1월 김 전 대표가 35억원을 돌려주자 고소를 취하했다. /연합뉴스

천하절경! 장가계특집

광주↔ 장사

6월 16일부터 ▶수/토요일 출발 (7월 14일 이후 출발 10만원 인상)

장사/장가계	4일
₩ 549,000	▶ 6/20, 27 7/4, 11
장사/장가계/황석체/상덕	5일
₩ 599,000	▶ 6/16, 23, 30 7/7
장사/장가계/천문산/상덕	5일
₩ 649,000	▶ 6/16, 23, 30 7/7

※ 불포함사항: 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팀

민족의 성지 백두산으로!

광주↔ 심양

매주 월 / 금요일 출발

고구려문화 유적지탐방	4일
₩ 529,000	▶ 매주 금요일 출발
심양/백두산	4일
₩ 659,000	▶ 매주 금요일 출발
심양/단동/백두산	5일
₩ 709,000	▶ 매주 월요일 출발

※ 불포함사항: 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팀

【노립!풀옵션】방콕/파타야/로열드래곤

5일

₩ 649,000	▶ 7/21, 22, 24, 28, 30 ~
【실속!】푸켓/팡아만/산호섬+전통안마	5/6일
₩ 849,000	▶ 7/18, 21, 22, 24, 25 8/4, 5, 7, 8, 11, 12
서안/장가계/원가계+황석체+천문산/계림	7일
₩ 849,000	▶ 7/23, 30 8/6, 13, 20
【실속!】복경/만리장성/용경협	4일
₩ 399,000	▶ 7/18, 19, 21, 22, 28 ~
【실속특가!】동경/낙고/후쿠시마온천	4일
₩ 699,000	▶ 7/26, 28, 29, 31 8/1, 2, 4, 8, 9, ~
【신관서 일주】오사카/나라/교토/벳부온천	4일
₩ 699,000	▶ 7/25, 26 8/1, 2, 8, 9, 15
【오감만족!】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	10일
₩ 1,990,000	▶ 7/21, 22, 24, 28, 30 8/1, 4, 8, 11, 15
환상의피지 유토크루즈+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2일
₩ 2,090,000	▶ 7/17, 18, 21, 22, 28 8/7, 14, 21
(노립!노옵션) 알찬! 스페인/포루투칼	9일
₩ 2,290,000	▶ 7/12, 19, 26, 30 8/2, 9, 16, 23
【노립!노옵션】동유럽5개국	9일
₩ 2,890,000	▶ 7/24, 25, 26, 28, 30 8/1, 2, 6, 9, 13
【노립!노옵션】유프리우나, 폴, 소+서유럽6개국	12일
₩ 3,490,000	▶ 7/23, 26, 30 8/2, 6, 9, 13
【특선!】러시아/북유럽4국	12일
₩ 3,090,000	▶ 7/25, 28 8/4, 6, 8, 11
[AC연합]캐나다 완전일주(디렉스)	8일
₩ 2,990,000	▶ 7/20, 27 8/3, 10
[사이판◆ 1+1무료!]PIC-GOLD+씨사이드그릴	5일
₩ 1,290,000	▶ 7/28, 29, 30 8/1, 2, 3
[팜◆ 특급!]PIC-GOLD+한타지 원주민디너쇼	5일
₩ 1,449,000	▶ 7/27, 28, 29, 30 8/1, 2 ~

☆선예약시 5~7%할인

좋은사람, 좋은여행-

www.verygoodtour.com

일반여행 등록 685호 / 롯데백화점 광주점 건너편

대표번호 1588-7557
광 주 접 062)515-7600

거품없는 가격만족! 품질만족!
꿈꾸던 여행이 시작됩니다. (단체문의 환영)

광주출발
제주도 여행!!

가족을 위한 주말 1박2일
(토/일요일 출발) ₩ 199,000

[주중] 2박3일 정기관광
₩ 159,000

직장인을 위한 주말 2박3일(금/토요일 출발)
₩ 219,000 / ₩ 189,000

[여름바캉스!] 제주2박3일
(비양도+초호화요트투어)
₩ 249,000(성인) / ₩ 219,000(아동)

[여름바캉스!] 제주랜트카자유여